

벗에게 ‘우정’ ‘희망’ 전하는 ‘무관’의 금지

〈無冠〉

婦 칸나그룹 실천보고 대회 방어진권

“나는 ‘무관’의 여러분이야말로 창가(創價)의 불경보살이라고 존경하고 신뢰합니다.”(이케다 다이사쿠 선생님)

스승과 불이(不二)의 마음으로 지역사회 곳곳에 희망과 연대를 넓혀가고 있는 울산 제1방면 방어진권 칸나그룹(권칸나그룹담당 김지영)이 지난 13일 한국SGI 방어진 문화회관에서 ‘칸나그룹 실천보고대회’를 열었다.

김지영 권칸나그룹담당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가까운 이웃에게 화광신문을 전하고 우호 확대에 승리한 사례를 말하며 “창가학회 창립 100주년을 향해 비약하는 ‘청년·미래총회’ 대승리를 위해 칸나그룹이 선두에서 스승께 보은하겠다”라고 인사했다.

이어 칸나그룹으로서 묵묵히 착실하게 발걸음을 옮기며 행복과 번영의 꽃을 피워낸 이들이 체험을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박옥순 반담은 생기발랄하게 칸나활동에 힘쓰면서 진정한 일가화락을 구축하고 사회에서 학회를 빛내는 자녀들의 활약을 이야기하며 “더욱 보은의 마음으로 화광신문 확대에 승리하겠다”라고, 사명을 자각한 칸나활동으로 건강과 아이의 체험을 일궈낸 안수경 지구부인부장은 “칸나활동으로



지난 13일, 방어진권 부인부 칸나그룹이 ‘칸나그룹 실천보고대회’를 했다. 참석자들은 스승의 구상을 실현하는 불경보살로서 지역광포를 위해 묵묵히 착실하게 발걸음을 옮길 것을 다짐했다.

로 경애를 더욱 열어가며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화광신문을 꾸준히 전하며 신심(信心)의 진정한 환희를 느낀 최정선 지구부인부장은 꿈에 그리던 어본존(御本尊)을 수지하게 된 체험을 소개하며 “창립 100주년을 여는 무관의 도전을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김경희 부인부장은 “숨은 신(信)이 있으면 나타나는 덕(德)이 있느니라’(어서 1527 쪽)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착실하고 가장 인내심 강한 공로를 거듭하신 여러분은 분명 대복덕에 감사여 삼세 영원히 번영하실 것입니다”라는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 선생님의 지침을 인용해 스승과 광포(廣

布)를 위해 노고를 거듭하는 칸나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눈앞의 한 사람을 소중히 하며 불법(佛法)을 알리고 자타(自他) 함께 숙명전환을 이뤄낸 칸나원들의 체험을 소개하며 “바뀌고 싶은 숙업이 있다면 포교를 하자. ‘포교’의 가장 빠른 실천은 칸나활동’이라는 다짐으로 함께 도전해가자”라고 격려했다. 끝으로 “칸나로 연(緣)을 맺은 소중한 ‘나의 청년’과 ‘나의 자녀’ 모두가 이번 ‘청년·미래총회’에 참석해 광포 후계의 인재로 선생님의 소중한 제자로 성장하도록 후회 없는 도전을 끝까지 펼치자”라고 당부했다.

김유빈 기자 ykim@

‘불석신명’ 새기고 스승의 마음 이어받아 상승 다짐!

〈不惜身命〉

은사기념실 연수 — 광주방면 장년부

창가 삼대(三代) 선생님이 실천한 사신홍법의 정신을 배우고 계승하는 한국SGI 장년부(장년부장 이명철)가 본부 은사기념실에서 연수를 열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광주방면(방면장 서영범) 장년부 반이상 간부가 본부를 방문, 은사기념실 연수를 했다.

연수 시작에 앞서 정재환 부장년부장은 은사기념실 연수를 축하하며 “창가 삼대가 관철한 불석신명의 혼을 새겨 연수를 새로운 출발의 날로 정해 광선유표를 위해 더욱 진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은사기념실의 설치 목적과 연수 의의에 대해 소개하며, 스승의 마음을 이어받아 연속

승리하는 장년부가 되자고 당부했다.

한국을 향한 이케다 선생님의 격려의 마음이 담긴 영상물 시청을 마치고 은사기념실을 둘러본 참석자들은 민중과 함께 세계평화를 위해 걸어온 스승의 행동과 궤적을 생명에 새기며 영원히 대원의 인생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우성 북광주권 반장은 “창가 삼대에 걸친 역사를 직접 마주하니 가슴이 뭉클하고 벅차올랐다. 스승의 뒤를 이어 제자로서 끝까지 대원의 인생을 살겠다”라고, 강홍주 남광주권 지구부장은 “제자로서 더욱 당당하게 학회와 스승을 알리겠다. 홀로 서는 신심으로 현장에서 청년과 미래부를 육성하는 황금기둥이 되겠다”라고, 고재철 서광주권 반장은 “도다 조세이(戶



광주방면 장년부는 지난 17일, 본부 은사기념실에서 연수를 하며, 스승의 마음을 이어받아 연속승리할 것을 다짐했다.

田城聖) 선생님과 이케다 선생님의 숙연 깊은 사제(師弟)에 크게 감명 받았다. 스승의 뒤를 이어 제자로서 끝까지 현장에서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 도전하는 반장이 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기수 기자 kims@

유럽종교아카데미 연차회의 ‘창가학회의 평화운동 연구’ 발표

【볼로냐】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이탈리아 볼로냐시에서 유럽종교아카데미 연차회의가 열렸다. 21일에 열린 학술세션에서는 ‘창가학회의 해군축운동을 주제로 지식인 4명이 등단해, 해군축운동의 원점과 취지 그리고 미래를 둘러싼 연구를 발표했다. 인트로비네 이탈리아신종교연구소 소장은

이탈리아창가학회의 ‘첸차토미카(핵무기는 필요없다)’ 핵무기 폐기 캠페인을 소개하며 예술표현을 통해 핵무기의 비참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신앙자유연합의 솔리테는 이케다 선생님의 평화제언을 언급하며 창가학회는 사상적 기반이 확고했기에 위기의 시대에

서 끈기 있게 평화운동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도비사와 영국 버킹엄대학교 명예연구원은 냉전 아래 이케다 선생님이 펼친 민간외교 등을 언급하며 불법의 평화사상 실천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논했다.

펠레기아 이탈리아 피사대학교 교수는 인간의 내면적 변혁이야말로 해군축을 진전시키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편집 정상훈 기자 tophoon@

광고는 한국SGI와 무관합니다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원장님의 비법으로 만들어습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우슬, 황칠, 두충, 가시오가피, 울금, 참당귀, 쇠비름, 독활, 마가목열매, 개다래열매, 산사나무열매, 맥아

※계단 오르기가 힘드시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복분자, 토사자, 사상자열매, 오미자, 구기자, 영경귀, 맥아, 산사나무열매

※소변 때문에 밤에 몇 번씩 일어나십니까?



여성초환

재료명:
여성초, 자소엽,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서목태, 측백나무잎, 녹차잎, 맥아, 산사나무열매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복껍데기 환 (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영경귀,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눈 때문에 세종대왕께서도 드셨고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 시 드셨습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예금주 : 윤제하

알림

日 소카대학교 온라인 유학설명회

소카대학교 유학 설명회(이하 설명회)가 오는 8월 28일(일) 11시에 온라인(줌 <Zoom>)으로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1부에서 입시제도 안내 및 체험 발표를 하고, 2부는 그룹 상담으로 진행한다. 소카대학교 입시에 관심이 있는 모든 지원자와 학부모는 ‘참가 신청 QR 코드’ 혹은 ‘url.kr/ljrv35’로 접속해 온라인

설명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7월 21일부터 8월 18일 오후 4시까지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을 마친 이들에 한해 ‘참가 신청서’에 기재한 메일로 온라인 설명회 접속 링크가 발송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 QR 코드

이탈리아문화회관 개관 30주년 행사

‘지금이야말로 평화·희망의 연대를’

【피렌체】 이탈리아창가학회가 지난달 26일, 이탈리아문화회관 개관 3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내빈을 초빙한 축하총회와 이탈리아창가학회가 기획하고 제작한 환경전시 ‘생(生)의 계승’전 등을 열어, 에우제니오 자니 토스카나 주지사를 비롯해 약 2500명이 방문했다.

이날 오후에는 이탈리아 각지에서 모인 대표 멤버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회를 열었다.

이케다 선생님은 메시지를 보내, ‘그리운 창가의 보성(寶城)’ 개관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그리고 이탈리아창가학회의 전진을 ‘세계의 모범’이라고 상찬하고, “지금이야말로 평화와 희망의 연대를 계속해서 구축해야 한다. 청년을 소중히 하고 청년을 육성하는 좋은 전통을 금지로 삼아 더욱더 생기발랄하게 사이 좋게 전진하자”고 말했다.

치프리아니 여주부장은 이탈리아 광포를 개척한 초창기 벗의 노고를 잊지 않고 광포의 일체를 짊어질 후계를 육성하겠다고 결의했다.

아프레아 이탈리아창가학회 회장은 한사람 한사람이 보은의 마음을 불태우며 인간 혁명의 대도(大道)를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저녁에는 축하총회를 열어, 자니 토스카나 주지사와 주세페 베도리 가톨릭교회 추기경을 비롯해 여러 종교단체 대표 그리고 각 시의 시장과 시의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장년부와 부인부의 합창에 이어 아프레아 회장이 인사했다. 그리고 청년부 대표가 여러 종교 대표와 협의해 정리한 청년부 선언을 발표하고, “연대의 폭을 넓혀 종교의 가치를 높이고 세계평화를 위해 지금까지 이상으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자니 주지사는 “지난 30년 동안 이탈리아창가학회 여러분은 평화·환경문제에 솔선해서 힘쓰고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청년육성, 문화와 사회 발전에 힘쓴 공적은 특별할 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베도리 추기경은 “여러 신앙을 가진 청년이 종교 간 대화에 진력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고 말하며 기대를 보였다.

한편, 축하총회를 이탈리아창가학회 공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중계해 1만 5500명이 시청했다.

신독 인간혁명

따뜻한 격려로 얻은 용기, 이제는 모두에게 격려를!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중증 지적장애에 판정을 받았다. ‘나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구나’라는 생각에 점점 자신감을 잃었다. 그 중에도 남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 사람들과 눈이라도 마주칠 때면 온몸에 전율이 나기도 했다.

하지만 강성하게 신심하는 부모님과 학회원의 격려를 받으며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덕분에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다짐했다.

‘남들 앞에서 자신 있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근행장제를 실천했다. 그리고 좌담회와 미래부 부원회에서 사회를 보고, 회순을 담당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그렇게 대학에 진학해 학업과 학회 사명을 병행하며 25:1이라는 경쟁을 뚫고 당당히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

현재 지부남자부장과 男미래부 권담당으로서 하루하루 대원의 인생을 살고 있

소설 ‘인간혁명’ 제권 (금추) 中

“인생의 희망의 무지개도 광포로 약속하는 전진이 있어야만 비로소 빛을 발하는 법이네.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지지 않는 강함이 있다. 그러나 희망을 잃으면 인생은 어둠이다. 절망은 정신의 죽음과 같다. 청년은 항상 희망을 안고 희망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세계 청년들의 마음에 희망의 무지개를 만들어주고 싶다...”

다. 미래부원 시절 따뜻한 격려를 해주던 학회원에게서 용기를 얻었듯, 나도 그러한 격려를 하며 즐겁게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도 창제를 근본으로 따뜻한 마음을 타인에게 전하고,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하겠다.



신정섭
순권권 백운자부 남자부장